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3-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새해맞이와 2024년 계획

2024. 01. 10.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024년에 대한 기대감

2024년 나의 삶은 2023년보다 나빠질 것 17%, 좋아질 것 44%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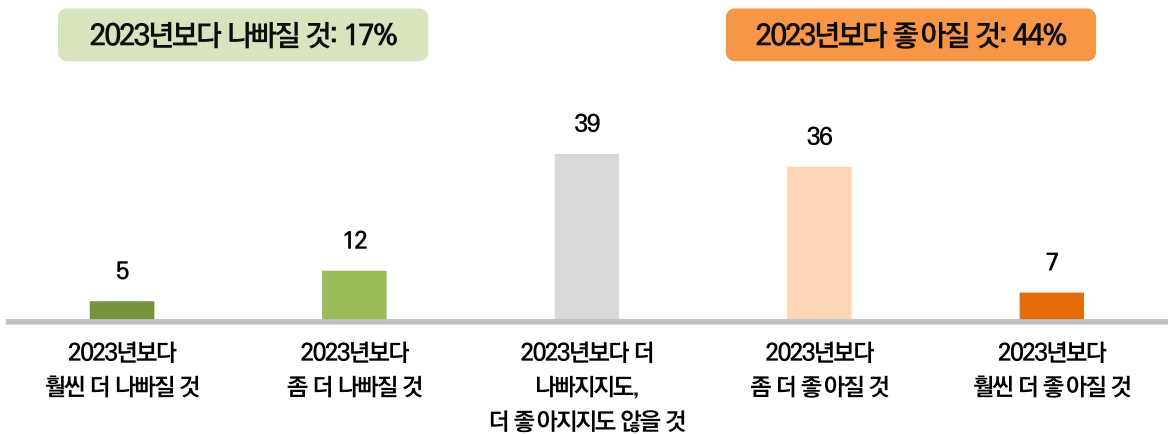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올 한해 개인적인 목표 등을 확인해 보았다.

2024년 본인의 삶이 지난해(2023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전체의 44%이다(좀 더 좋아질 것 36%, 훨씬 더 좋아질 것 7%). 반면 17%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한다(좀 더 나빠질 것 12%, 훨씬 더 나빠질 것 5%).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사람은 39%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2023년은 나에게 '줄지 않은 한 해' 였다고 평가하는 사람(37%)이 '좋은 한 해' 였다는 평가(25%)보다 많았다. 2023년은 전반적으로 아쉬웠다는 평이나, 새로 시작하는 2024년은 희망을 품고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2024년 나의 삶, 2023년보다 나빠질 것 17%, 좋아질 것 44%

(단위 : %)



질문: 2024년도 귀하의 삶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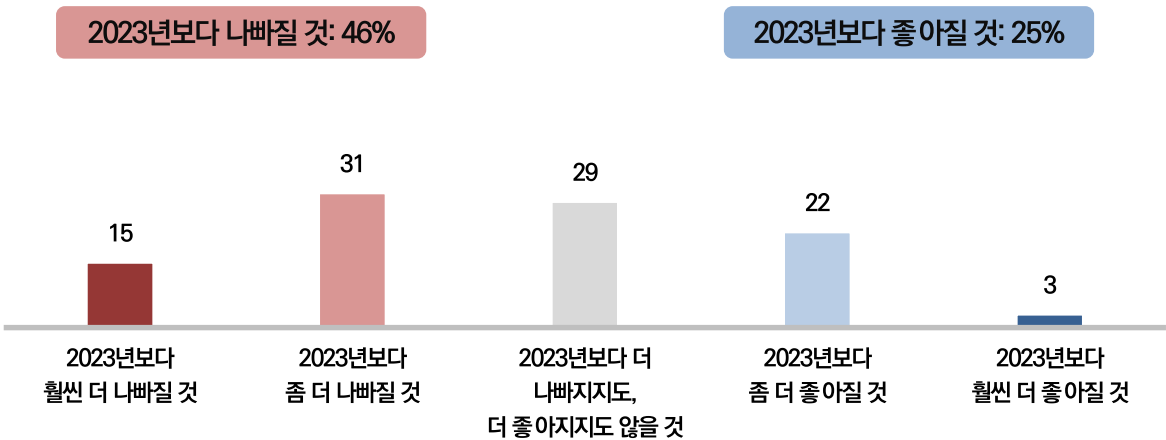
2024년 대한민국은 2023년보다 나빠질 것 46%, 좋아질 것 25% 비관적인 전망 우세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2024년 대한민국은 2023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전체의 46%로, 2023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사람(25%)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2023년보다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29%이다.

전체 응답자 중 55%가 2023년 대한민국은 '좋지 않은 한 해' 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지난해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2024년 대한민국, 2023년보다 나빠질 것 46%, 좋아질 것 25%

(단위 : %)



질문: 2024년도의 대한민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18-29세 61%가 '2023년보다 내 삶은 더 좋아질 것' 진보층은 67%가 '우리나라, 2023년보다 나빠질 것', 보수층은 40%가 '우리나라, 2023년보다 좋아질 것'

연령대가 낮을수록 2024년 본인의 삶이 2023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다. 18-29세에서는 61%가 2023년보다 더 좋은 2024년이 될 것이라 전망했고, 30대(47%), 40대(51%) 또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난해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60대 43%, 70세 이상 55%)

2024년 대한민국에 대한 전망은 이념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진보층에서는 3명 중 2명(67%)이 2024년 대한민국을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18-29세(52%), 40대(50%), 50대(52%)도 절반 가량이 올 한해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40%가 2024년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부정적인 의견(31%)보다 높다. 60대(37%), 70세 이상(39%)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18-29세는 61%가 ‘2023년보다 내 삶은 더 좋아질 것’ 긍정적 전망 높아
진보층은 67%가 ‘우리나라, 2023년보다 나빠질 것’, 보수층은 40%가 ‘우리나라, 2023년보다 좋아질 것’

(단위 : %)

사례수 (명)		2024년 나의 삶은...			2024년 대한민국은...		
		2023년보다 나빠질 것	2023년과 비슷할 것	2023년보다 좋아질 것	2023년보다 나빠질 것	2023년과 비슷할 것	2023년보다 좋아질 것
전체	(1,000)	17	39	44	46	29	25
성별							
	남자 (496)	18	39	43	44	29	27
	여자 (504)	16	40	44	48	29	23
연령							
	18-29세 (161)	10	29	61	52	33	15
	30대 (149)	17	36	47	45	36	19
	40대 (179)	14	35	51	50	28	22
	50대 (195)	24	39	37	52	28	20
	60대 (173)	22	43	35	40	23	37
	70세 이상 (143)	15	55	29	35	26	39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45)	11	34	55	44	29	28
	하층 (627)	21	42	37	48	28	23
	모름 (28)	5	51	43	36	36	28
이념성향							
	진보층 (274)	22	34	44	67	21	12
	중도층 (366)	15	44	41	46	32	22
	보수층 (323)	17	37	46	31	29	40
	모름 (37)	7	51	42	30	50	20

질문: 2024년도 귀하의 삶은 / 2024년도의 대한민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2024년 개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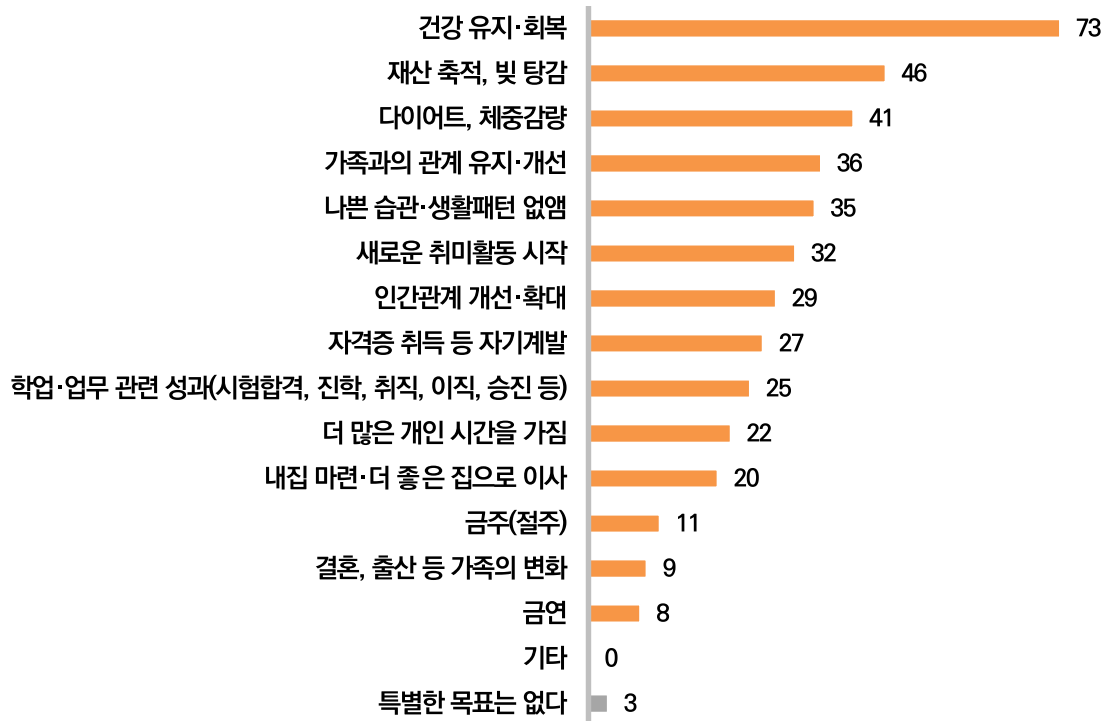
2024년 개인목표, 건강 유지·회복, 재산축적·빚 탕감, 다이어트·체중감량 순

새해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며 각오를 다진다. 2024년 한 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3%가 건강 유지·회복을 꼽았다. 다이어트·체중감량(41%)을 한 해 목표로 잡았다는 응답 또한 재산 축적·빚 탕감(46%) 다음으로 높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가 2024년에도 중요한 한 해 도전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36%), 나쁜 습관·생활패턴 없앰(35%), 새로운 취미활동 시작(32%) 등도 주요 한 해 목표로 언급되었다. 특별한 목표가 없다는 사람은 3%로 매우 적다.

2024년 개인목표, 건강 유지·회복, 재산축적·빚 탕감, 다이어트·체중감량 순

(단위 : %)



질문: 2024년 한 해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는 절반 이상이 자기계발과 학업·업무성과를 2024년 목표로 잡아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건강관리를 목표로 해

한 해 목표 설정에 대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세대별 차이는 뚜렷하다. 전 연령대에서 최소 60% 이상이 건강 유지·회복을 2024년 목표로 잡았으나, 특히 60대(83%), 70세 이상(85%)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올 한 해 목표로 언급하였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과 학업·업무 관련 성과를 올 한 해 목표로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8-29세에서는 학업·업무 관련 성과와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을 목표로 잡은 사람이 각각 69%, 56%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과반을 넘겼다. 30대와 40대에서는 건강관리와 함께 재산 축적·빚 탕감을 주요 목표로 언급한 사람이 많았다.

18-29세는 절반 이상이 자기계발과 학업·업무성과를 2024년 목표로 잡아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건강관리를 목표로 해

(단위 : %)

사례수 (명)		건강 유지· 회복	재산 축적, 빚 탕감	다이 아트, 체중 감량	가족 과의 관계 유지· 개선	나쁜 습관· 생활 패턴 없애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	인간 관계 개선· 확대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	학업· 업무 관련 성과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가짐	내집 마련·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금주 (절주)	결혼, 출산 등 가족의 변화	금연	기타	특별한 목표는 없다
전체	(1,000)	73	46	41	36	35	32	29	27	25	22	20	11	9	8	0	3
성별																	
남자	(496)	70	50	35	38	33	30	33	25	25	24	20	14	9	13	0	3
여자	(504)	75	42	46	35	38	35	24	29	24	20	20	8	8	3	0	4
연령																	
18-29세	(161)	60	51	47	25	39	41	34	56	69	24	18	9	10	5	0	3
30대	(149)	60	57	47	30	28	30	20	34	36	23	26	11	21	6	1	2
40대	(179)	70	60	48	35	32	23	25	28	22	16	26	14	5	9	0	3
50대	(195)	78	53	44	37	40	29	26	24	15	22	19	11	5	12	0	3
60대	(173)	83	35	31	50	37	38	35	15	6	25	16	10	7	9	1	2
70세 이상	(143)	85	15	27	41	34	33	31	4	3	23	15	8	6	3	0	8
2024년 삶 전망																	
더 좋아질 것	(436)	77	56	46	42	42	38	34	35	36	24	26	10	12	5	0	1
비슷할 것	(393)	73	37	38	34	30	27	24	22	17	22	15	12	6	9	0	5
더 나빠질 것	(171)	63	42	36	28	31	30	27	19	15	19	15	10	8	11	0	8

질문 : 2024년 한 해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신년 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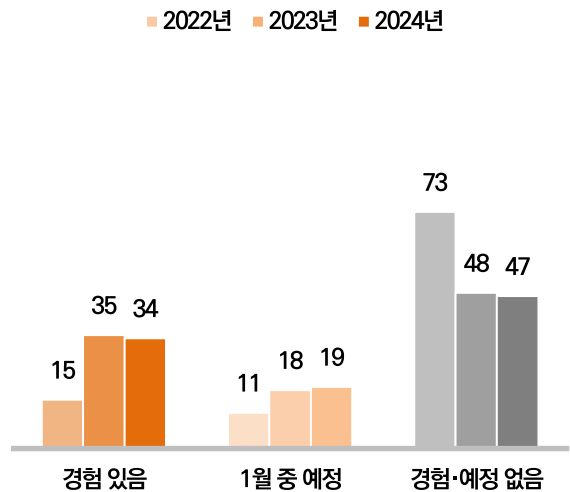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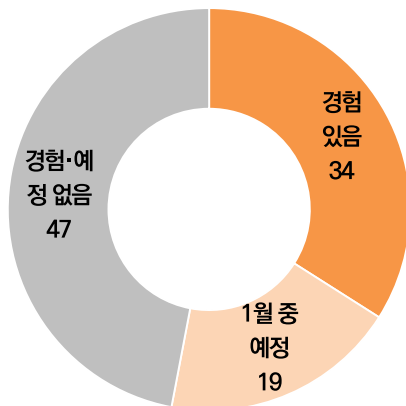
연초 해돋이 경험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53%, 1년 전과 비슷

절반이 조금 넘는 53%가 연 초 해돋이 감상 경험이 있거나, 1월 중에 감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해돋이 감상함 34%, 1월 중 예정 19%). 1년 전(52%, 해돋이 감상함 35%, 1월 중 예정 18%)과 비슷한 수준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2년(26%, 해돋이 감상함 15%, 1월 중 예정 11%)보다는 두 배 가량 높다. 지난해 말 해넘이 감상 경험(40%)과 비교해도 13%포인트 높다.

연초 해돋이 경험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53%, 1년 전과 비슷

(단위 : %)

연초 해돋이 감상



질문: 연 초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연초 해돋이 감상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 7 ~ 10 // 2023. 1. 13 ~ 16 //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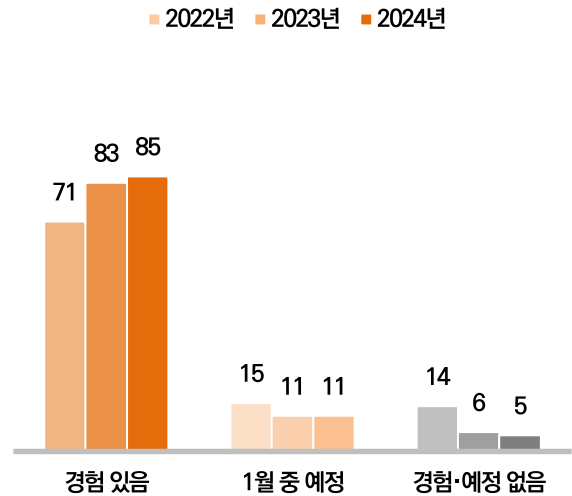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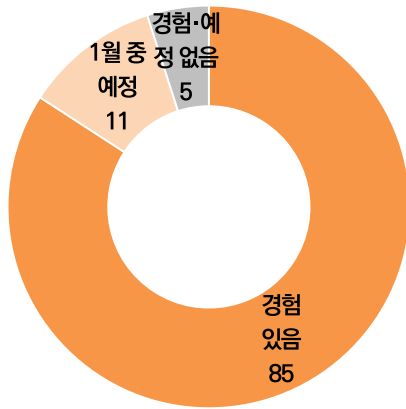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 전했다 85%

전체 응답자 중 85%가 새해를 맞아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직 못 했으나, 1월 중에는 할 것이라는 사람은 전체의 11%이다. 새해 인사 및 덕담을 전했다는 사람은 지난해(83%)와 비슷한 수준이며, 2022년(71%)보다는 14%포인트 높다.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 전했다 85%

(단위: %)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 전하기



질문: 연 초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 전하기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 7 ~ 10 // 2023. 1. 13 ~ 16 //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족, 친척과 신년 모임이나 외식 가졌거나 1월 중 예정한다 87%,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 모임·외식 가졌거나 1월 중 한다 86%, 모두 1년 전과 비슷

가족 및 친척과 신년모임·외식 등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60%이다. 1월 중 계획이 있는 사람(27%)을 더하면, 전체 응답자의 87%가 1월 중 가족 및 친척과의 신년 맞이 만남을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87%)와 동일하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2년(46%)에 비하면 41%포인트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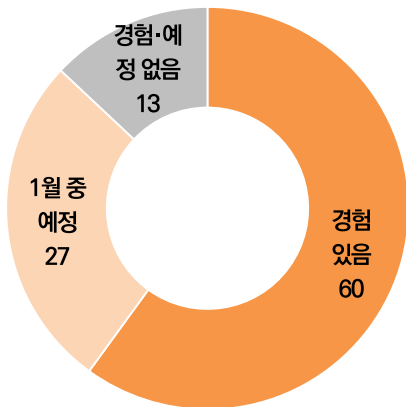
친구·지인·회사동료 등과 신년회를 이미 가진 사람은 전체의 56%이며, 아직 갖지는 못했으나 1월 중 예정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30%이다. 모두 더하면, 86%가 1월 중 친구·지인·회사동료 등과 신년회를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82%)보다는 4%포인트가 높으며, 2022년(41%)과 비교하면 역시 45%포인트 증가했다.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신년맞이 모임이 2023년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2024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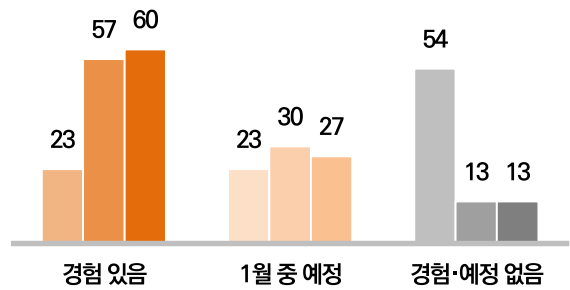
가족, 친척과 신년 모임이나 외식 가졌거나 1월 중 예정한다 87%,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 모임·외식 가졌거나 1월 중 한다 86%, 모두 1년 전과 비슷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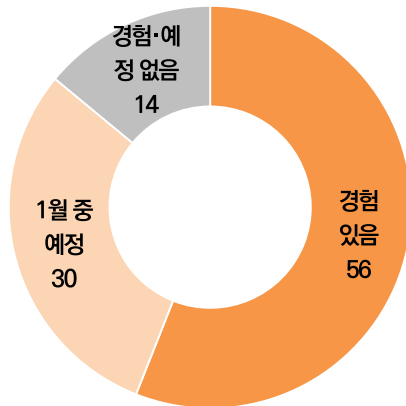
가족, 친척과 신년회 (모임, 외식, 파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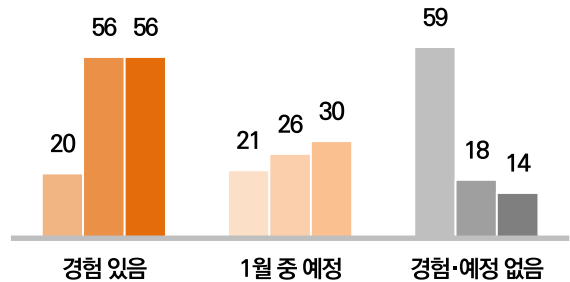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회 (모임, 화식, 외식, 파티 등)



2022년 2023년 2024년



질문: 연 초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가족, 친척과 신년회 (모임, 외식, 파티 등) //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회 (모임, 화식, 외식, 파티 등)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 7 ~ 10 // 2023. 1. 13 ~ 16 //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3년 12월 기준 약 8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8,392명, 조사참여 1,54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1.9%, 참여대비 64.9%)
조사일시	• 2024년 1월 5일 ~ 1월 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